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 완성되는 보통의 일상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 위험성평가 컨설팅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불은 언제나 밝다.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수많은 노동의 유형, 1,4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불을 밝히며 시민들의 일상을 완성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산업안전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긴다.

글 기사윤 사진 김재이





안전보건경영을 강화하는 공생협의회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2009년 7월 개화-신논현 27km 구간 개통된 도시철도의 운영기관이다. 안전한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경영 최우선 가치로 시민재해 예방은 안전부문 철도안전처가, 산업재해 예방은 안전부문 산업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자 수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약 1,400명에 달한다. 역무원을 비롯해 기관사, 관제사, 열차 및 선로 등 각종 시설 정비 노동자의 유기적 연계가 철도를 시민의 발로 기능하게 한다. 이때 직종별 다양한 작업 유형을 파악하고, 유해·위험 요소에 대응하는 게 산업안전처의 역할이다. “도시철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업장은 그야말로 365일, 24시간 쉼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업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유형이 설비·정비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사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14개 협력사 노동자대표들로 구성된 ‘공생협의회’는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다. 안전부부장 강성화 부사장은 매월 1회씩 공생협의회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이슈를 논의, 점검한다고 말한다. 최근 공생협의체를 통해 나온 이슈 중 하나는 본선 환기설비 유지·보수 작업 시 위험요소였다. 본선 환기설비는 터널 내 본선 환기 장치로 작업자들은 4~20m 구간을 특별한 보완 장치 없이 수직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추락의 위험이 있었죠. 23개소 본선 환기설비 모두에 안전 블록을 설치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었던 부분을 그동안의 관행이 눈을 가렸던 셈이죠.”

안전부부장 강성화 부사장은 안전보건경영 활동의 핵심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덧붙인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노동자 의견 청취

익숙해서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 개선하는 과정은 그 누구의 노력이 아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대한산업보건협회부터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또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컨설팅에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위험성평가 체계 및 현황, 수행 내역 등이 검토됐다.

“서면 심사와 현장 점검 외에도 노동자 인터뷰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평소 듣지 못했던 답변을 이끌어 내준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컨설턴트와 함께 노동자 의견을 수렴했던 산업안전처 이도후 과장은 “전문가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장 노출되지 않은 문제에는 건성으로 답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컨설턴트가 행동을 포착하면서 질문을 이어가니까 노동자 또한 비로소 문

제의식을 갖더라고요.”

선로 유지·보수 작업 시 깊숙한 공간을 “그냥 건너다”는 노동자에게 “공간이 깊어 신경이 많이 쓰이겠네요?”라고 질문하며 위험 요소를 짚어줬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이 위험을 포착하고 문제점을 이끄는 방법은 ‘모터카 작업대 추락 위험’, ‘케이블 피복 손상으로 인한 감전 위험’ 등의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위험성평가의 주체는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되어야 하고요. 대한산업보건협회 덕분에 위험성평가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안전처 이재기 처장 또한 “변경된 위험성평가 지침에 서울시메트로9호선만의 구체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었다”며 컨설팅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자발적 안전보건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

서울시메트로9호선 안전부문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각별히 신경 쓰는 점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강제성을 띠는 제도적 장치는 일터에서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법이죠. 노동자의 자발적 안전보건 활동이 관건인데,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부문장 강성화 부사장이 일례로 드는 것은 최근 국가금연센터와 이화여대 연구팀과 협업해 전개한 ‘노담 캠페인’이다. 협력사 및 전사 금연 캠페인으로 노동자에게 전문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금연용품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건자 9’도 노동자의 호응과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하루 걸음 수를 기록하고 그 마일리지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되는 프로그램이다.

안전부문장은 보건뿐 아니라 안전부문에도 ‘마일리지 제도’를 기획 중이다. 그동안의 관행에서 유해·위험 요소를 찾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문제의식을 찾는 방법을 더욱 선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서의 위험성평가가 사업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노동자의 참여를 이끄는 효율적 방법들을 고민해가겠습니다.”

협회의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평가 운영방향성을 점검하고, 산업안전처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는 강성화 부사장. 더욱 적극적인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나간다는 다짐이다. 🍷

Mini Interview

문제의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권위’를 높일 것

안전부문장 강성화 부사장

Q. 안전부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안전보건경영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철도안전처, 산업안전처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민재해 예방은 철도안전처가, 산업재해 예방은 안전부문 산업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시민에 안전한 일상을, 노동자에게 건강한 일터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Q. 안전보건 부문 다짐을 들려주세요

제재하고 처벌하는 ‘권위주의’가 아닌 문제의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안전보건의 ‘권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문제를 찾고 이의를 제기하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자기규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